

아아...  
미, 미림이만은...

원 상태로  
돌려줘....

내가  
뭐든 할 테니까...

함 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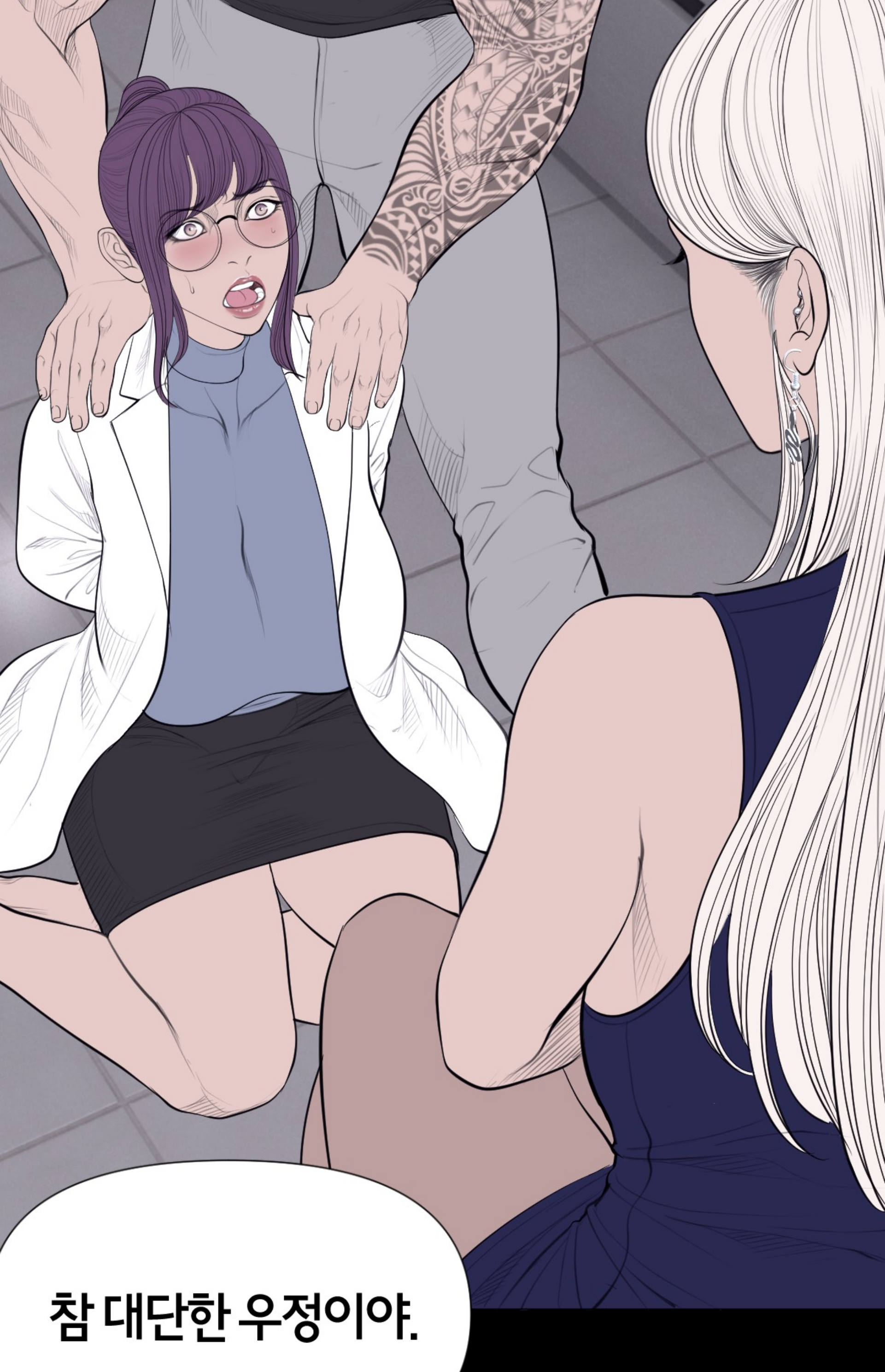
함 짹

함 짹

제발...

쿠쿠...

이 언니도 전에  
똑같은 소리 하더라.



참 대단한 우정이야.

근데 그런  
뻘한대사안통한다는 거  
잘알지 않나?



....!

어차피  
그렇게 빌지 않아도



언니는 우리를 위해서  
'뭉든' 하게 될 거야.

하아...



비, 빌어먹을...



의식이...



점점...



흐려져...



혼자 이방인이 된 거 같아 많이 외로웠지?

아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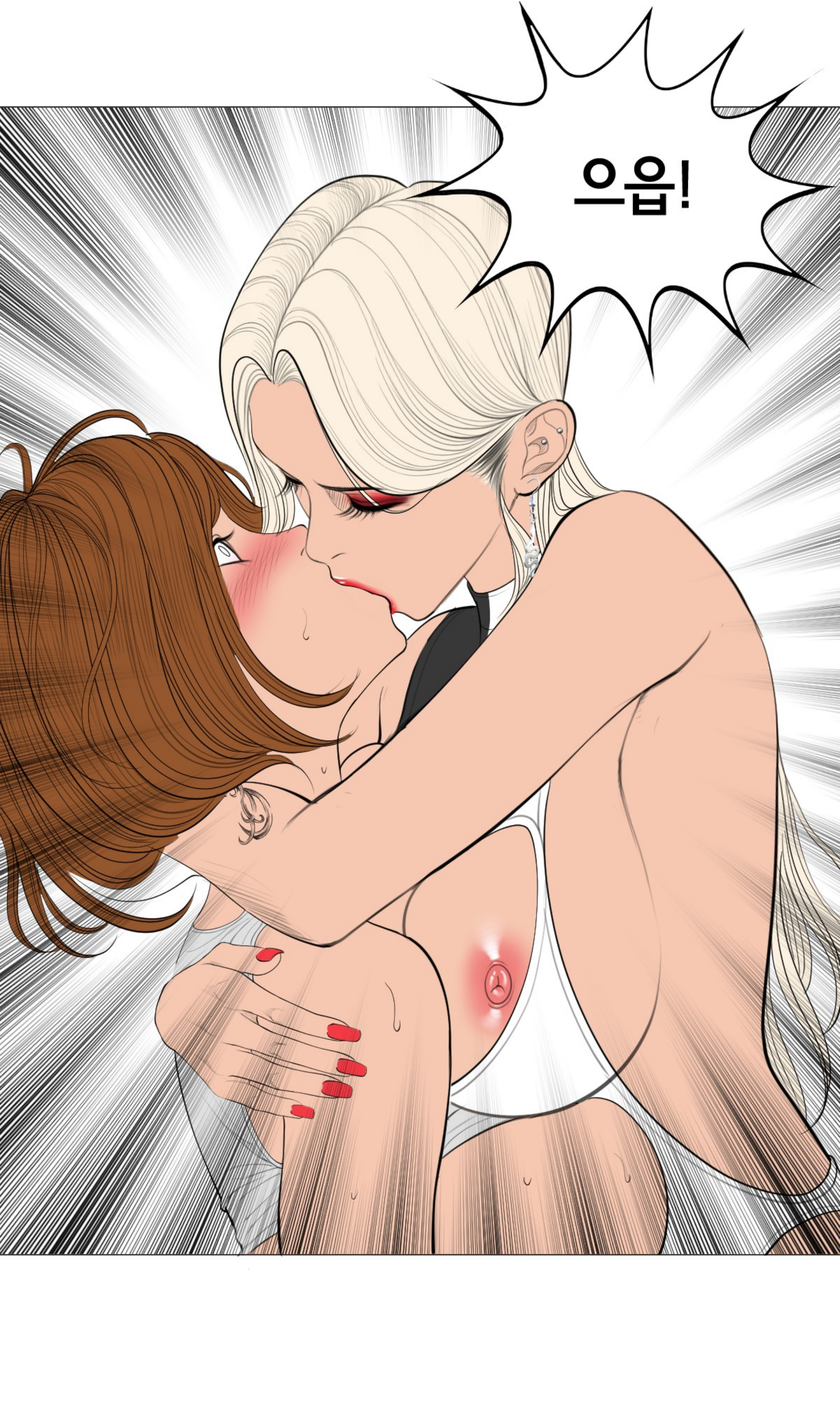
이젠 걱정할 거 없어.

으웃...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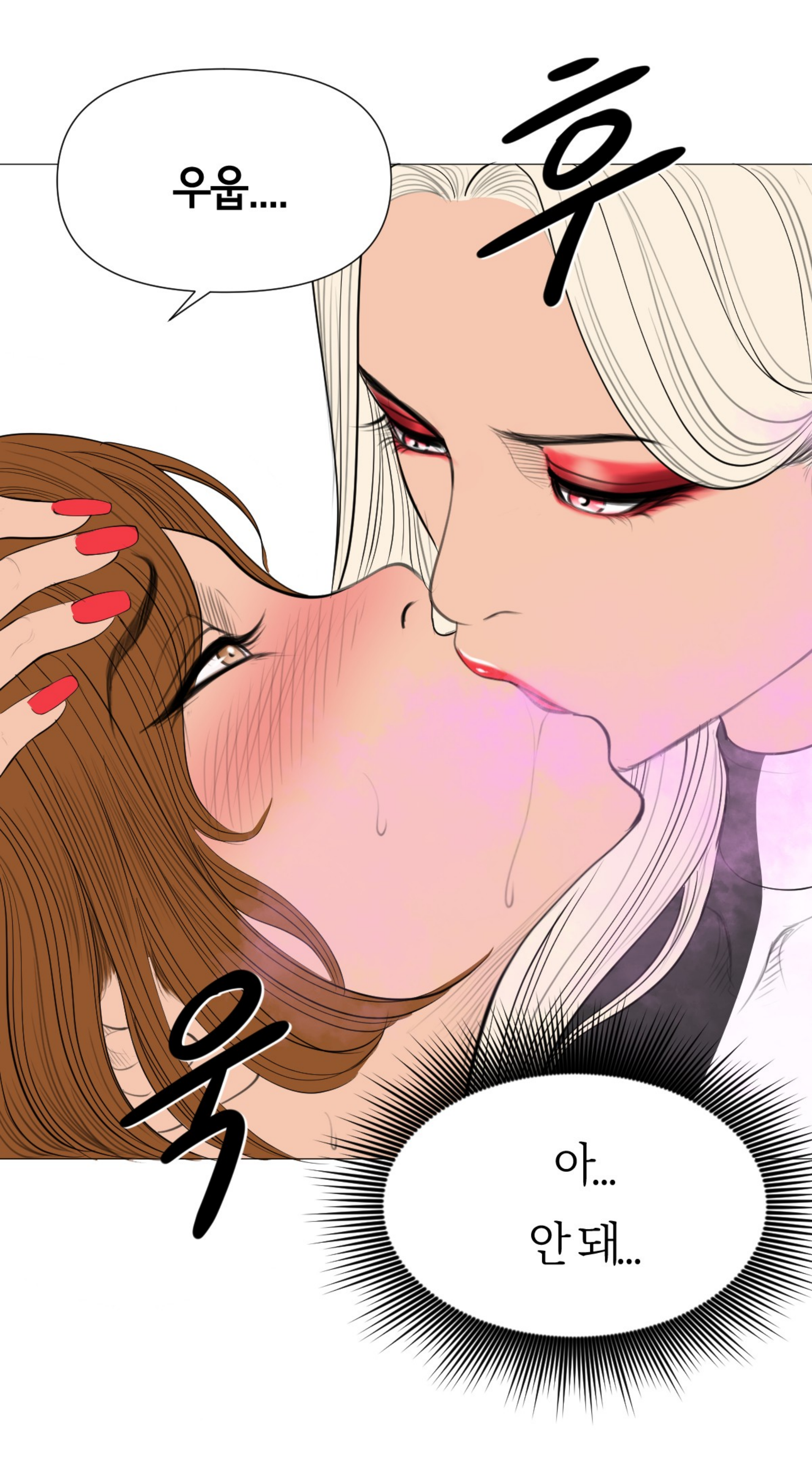
문걸

문걸

언니도 우리 '문화'에  
자연스럽게 융화될 거니까...



으음!



우웬...

후

아.. 안돼...



몸에 힘이  
빠져서...

아무것도  
할 수가 없어...



더, 더는...

버틸 수...



... 지민 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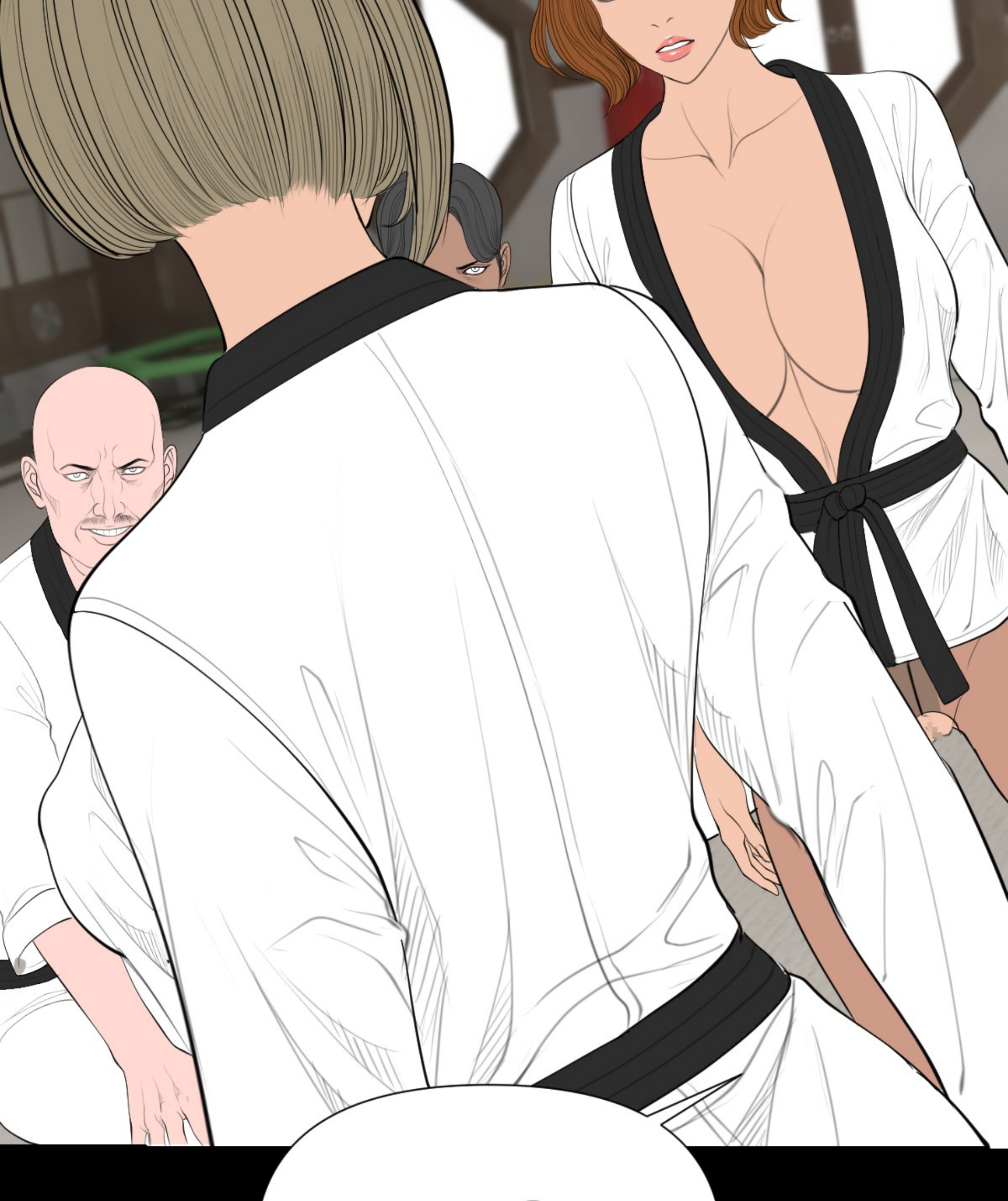
이지민!



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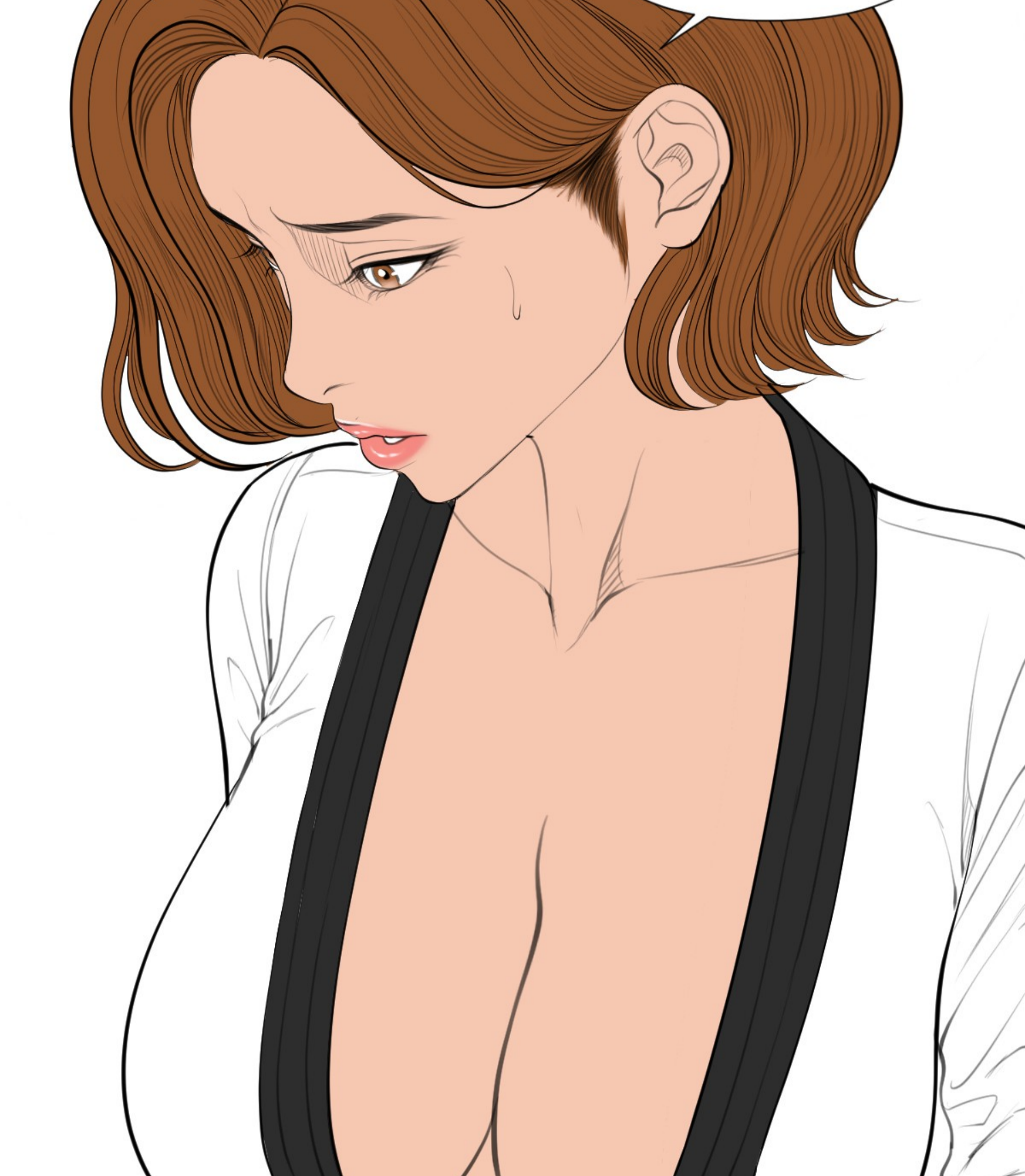


대련 중에 정신을  
어디 팔고 있는 거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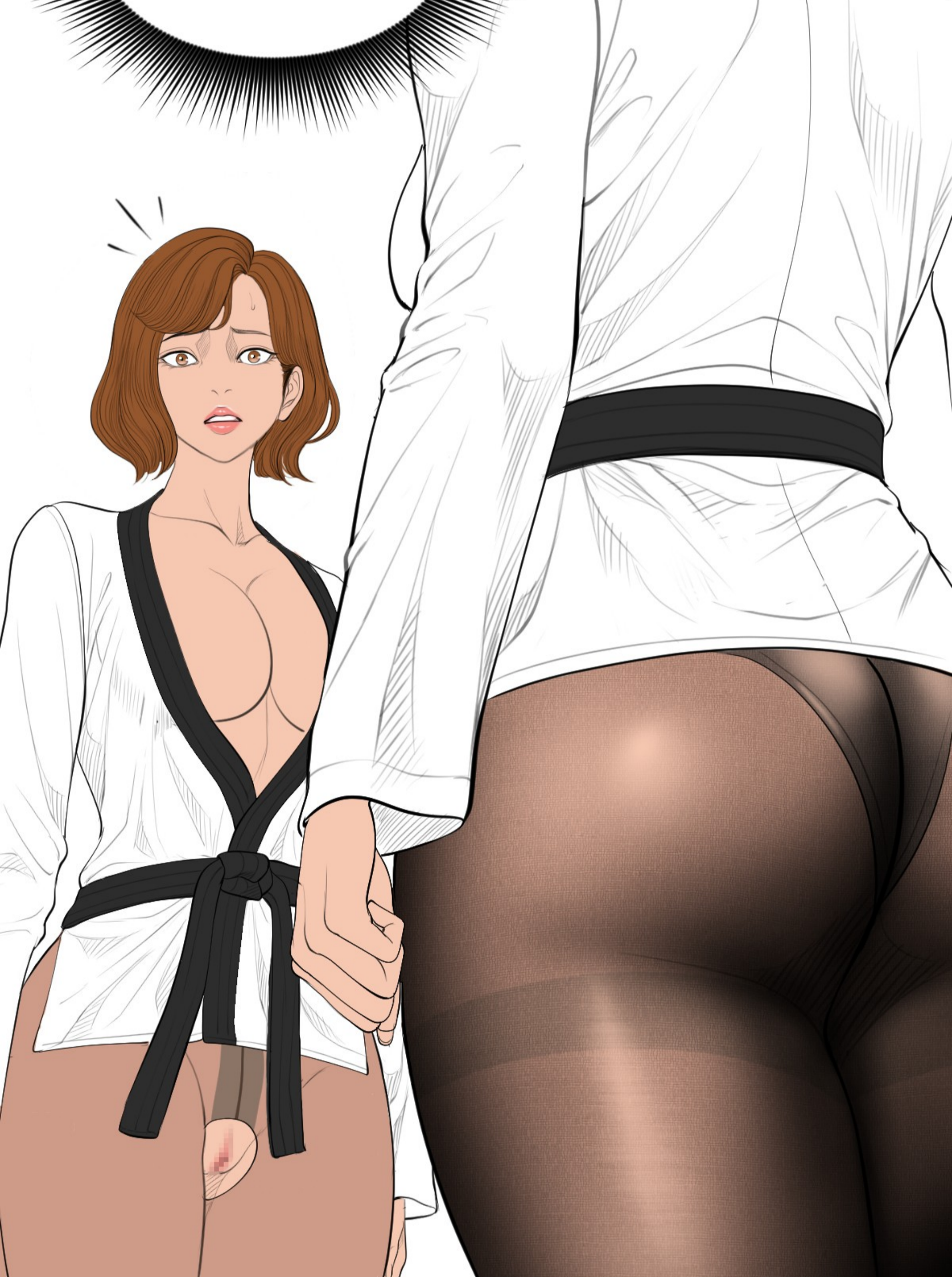


... ?

아...



뭐지...?



원래 도복이...

이렇게  
생겼던...가?

